

# KIA '슈퍼루키' 윤영철, 2년전 이의리 길 걸을까

신인 중 유일하게 1군 스프링캠프 참가

5선발 후보로 거론...순조롭게 시즌 준비

KIA 타이거즈의 '슈퍼루키' 윤영철(19)이 팀 선배 이의리(21)가 2년 전 걸은 길을 걷게 될까.

총암고 시절부터 심준석(피츠버그 파이어츠), 김시현(한화 이글스)과 함께 특급 유망주로 주목을 받은 윤영철은 2023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KIA 지명을 받았다.

지명 당시부터 '즉시 전력감'이라는 평가를 받은 윤영철은 입단 첫해부터 1군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에 승선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키노 스포츠컴플렉스에서 진행 중인 KIA의 1군 스프링캠프에서 신인은 윤영철이 유일하다.

윤영철은 순조롭게 2023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세 차례 볼펜 투구와 두 번의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며 실전을 치를 수 있을 만큼 몸 상태를 끌어올렸다. 윤영철의 공을 직접 살펴본 김중국 KIA 감독이 "신인 같지 않게 공을 던진다"며 흡족함을 드러냈다는 것이 구단 관계자의 전언이다.

애초 KIA는 윤영철을 미국에 데려가 직접 기량을 살핀 후 보직을 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영철이 기대 이상의 공을 던지자 5선발 후보에 올려놨다. 윤영철은 스프링캠프, 시범 경기를 거치며 임기영, 김기훈과 5선발 경쟁을

하게 될 전망이다.

KIA는 윤영철을 바라보며 2년 전 이의리를 떠올린다.

광주일고 시절부터 초고교급 투수로 주목을 받은 이의리는 2021년 KIA에 1차 지명을 받았다.

입단 첫해인 2021년 1군 스프링캠프 참가 명단에 포함된 이의리는 두각을 드러내면서 개막 선발 로테이션 진입에 성공했다.

이의리는 2021시즌 전반기에 14경기에서 4승 3패 평균자책점 3.89로 활약해 그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도 달았다.

시즌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해 일찍 시즌을 접기는 했지만, 이의리는 1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다.

이의리는 2021시즌 전반기에 14경기에서 4승 3패 평균자책점 3.89로 활약해 그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극마크도 달았다.

시즌 막판 발목 부상을 당해 일찍 시즌을 접기는 했지만, 이의리는 19경기에서 4승 5패 평균자책점 3.86을 기록,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달성했다.

윤영철도 당장 1군에서 통할 수 있는 공을 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교 시절부터 수준급 경기 운영 능력을 뽐냈던 윤영철이 스프링캠프에서도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KIA의 기대는 점차 부풀고 있다.



윤영철이 5선발 경쟁을 뚫는다면 선배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5선발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도 미래 선발의 한 축으로 기대를 받는 윤영철은 꾸준히 기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스프링캠프에서 선발 경쟁을 펼치는 만큼 시즌 도중 선발진에 공백이 생기면 선발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스프링캠프 출국 당시 윤영철은 "선발로 던지고 싶기는 하다"면서도 "아직 신인이고, 어떤 자리든 많이 던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IA는 19일 투손에서 훈련 중인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대표팀과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실전 감각 조율에 나선다. 투손에서 NC 다이노스와 두 차례 연습경기가 예정돼 있고, 이달 말 일본 오카나와로 건너가 본격적인 실전 체제에 돌입한다.

선발 경쟁 중인 윤영철도 여러차례 등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전을 통해 눈도장을 찍어야 윤영철의 선발진 진입 꿈도 이뤄질 수 있다.

이슬비기자



## 이강인 81분 펄펄 날았다

리그 4번째 도움...소속팀 완승

22세 생일을 맞은 이강인이 리그 4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소속팀 마요르카의 완승을 이끌었다.

이강인은 1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에스타디 마요르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비아레알과 2022-23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홈경기에서 후반 11분 다니 로드리게스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23일 발렌시아와 원정경기에서 리그 3번째 골을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활약 속에 비아레알을 4-2로 꺾었다.

한국시간으로 생일, 스페인 현지시간으로 생일 전야에 경기를 치른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비아레알의 수비를 괴롭혔다. 이전보다 더욱 강해진 수비 압박으로 공격 기회를 창출하며 공격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강인의 경기력은 전반 45분 로드리게스의 첫 번째 골에도 관여했다. 1-1 동점인 상황에서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서 수비수 2명을 앞에 놓고 파블로 마페오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다. 마페오는 아크 오른쪽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로드리게스의 헤더로 연결됐다.

전반을 2-1로 앞선 마요르카는 후반 5분 사무엘 추쿠에제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6분 뒤 이강인의 태클 크로스로 다시 리드를 잡았다.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올린 정확한 코너킥이 로드리게스에게 연결됐다. 로드리게스는 헤더로 페페 레이나가 지키는 비아레알의 골문을 열었다.

3-2로 다시 앞서가는 골을 터뜨린 마요르카는 안토니오 라이요의 패스를 받은 베아트 무리키의 추가골로 썩기를 박았다.

이강인은 후반 28분 비아레알 공격 과정에서 단 둘레로 레이나와 일대일로 맞서는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원발 슈팅이 골문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서 아쉽게 득점까지 올리지 못했다. 이강인은 후반 36분 교체 아웃으로 자신의 임무를 기쁘게 마쳤다.

뉴스



박지수, 포르투갈 무대 데뷔 무대서 폴타임... 2-1 승리 (사진 = 포르티모넨스 홈페이지 캡처)

## 박지수, 포르투갈 무대 데뷔전 폴타임

2-1 승리

포르투갈 프로축구 포르티모넨스 유니폼을 입은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가 데뷔전에서 폴타임을 소화했다.

박지수는 19일(한국시간) 포르투갈 포르티망의 포르티망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리티모와의 2022-2023 포르투갈 프로축구 프리메이라리가 21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 폴타임을 뛰며 포르티모넨스의 2-1 승리에 일조했다.

지난달 겨울 이적시장을 통해 포르투갈 리그에 진출한 박지수의 데뷔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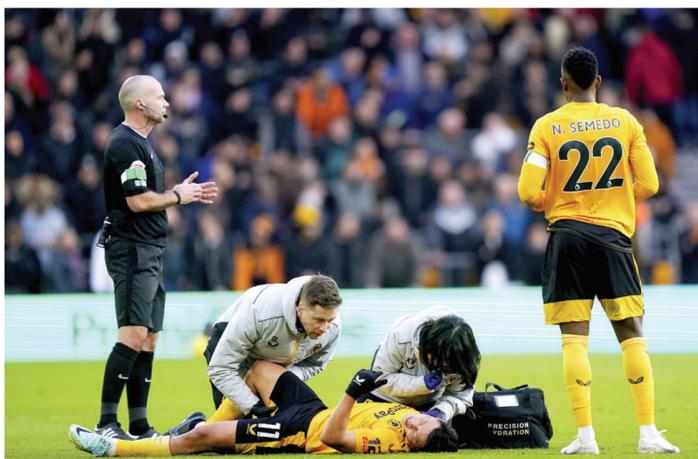
지난해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명단 발표를 앞두고 가진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어 고배를 마셨던 박지수는 월드컵 이후 전격적으로 유럽 무대에 진출했다.

포르투갈 출신인 파울루 벤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조력이 있었다.

포르티모넨스는 전반 13분 실점해 끌려갔지만 후반 39분 마우리시오의 동점골과 추가 시간 웰링턴 주니오르의 극적인 역전골로 승점 3 획득에 성공했다.

뉴스

## 황소의 질주도 멈춘다...공포의 햄스트링 부상, 뒤통리에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폭발적인 질주로 한국 축구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황소' 황희찬(27-울버햄튼)이 최근 허벅지를 부여잡고 그라운드에서 쓰러졌다. 월드컵 당시에도 자주 등장했던 햄스트링 부상이 또 다시 불거진 것이다.

한 번 발생하면 한동안 공백이 불가피한 햄스트링 부상은 그만큼 중독을 막론하고 운동선수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일 부상을 입은 황희찬은 당시 리버풀과의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5분 만에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는 등 기본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전반 38분 전력 질주에 나서던 중

아무런 물리력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혼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감싸쥐고 주저앉았다.

그라운드에서 누워 통증을 호소하던 황희찬은 의료진의 검사를 받은 뒤 절뚝거리며 그라운드를 내려왔다.

팀의 첫 골에 기여하는 등 플레이가 좋았던 상황인 만큼 아쉬움은 더했다.

월드컵 기간을 포함해 최근에만 벌써 두 차례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을 입은 황희찬이다.

황희찬은 지난해 11월 카타르월드컵을 앞두고도 같은 부위를 다쳐 조별리그 1, 2차전인 우루과이와 가나전에 결장했다.

당시에도 기적적으로 회복해 조별리그 최종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 나설 수 있었

허벅지 뒤 근육·힘줄...회복에 4-5주 소요

황희찬, 프로 데뷔 후 벌써 4차례 다쳐

폭발적인 질주 뒤 동작 멈춰야 할 때 사용

특별한 예방법 없고 재발 가능성 높아

고, 마치 드라마처럼 후반 추가시간 손흥민(토트넘)의 패스를 받아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후 햄스트링에서 회복해 소속팀으로 돌아간 황희찬은 약 두 달 만에 또 같은 부위를 다쳤다.

프로 데뷔 이후 4번째다. 2017-2018시즌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서 햄스트링으로 약 두 달 넘게 결장했고, 2021-2022시즌 울버햄튼에서 햄스트링을 다쳐 한 달 넘게 쉬었다.

올런 로페테지 울버햄튼 감독은 "햄스트링은 선수마다 회복 정도에 차이가 있다. 황희찬은 회복까지 4-5주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의 질주를 다시 부상으로 멈춰 세운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의 근육과 힘줄을 말한다.

해당 부위는 대부분의 축구 선수가 자주 다치는 곳이기도 하다.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질주를 한 뒤 공의 방향을 바꾸거나 동작을 멈춰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곳이다.

축구 선수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야구, 농구 등 거의 모든 스포츠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에 노출돼 있다.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되면 허벅지에 찌릿한 느낌과 함께 강한 통증이 유발된다. 다리

를 펴기가 어렵고, 파열이 일어날 때 '뚝'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물리적인 충격이 아닌 내부적인 근육 부상으로 다치는 것인 만큼 선수가 느끼는 공포는 더욱 심하다.

햄스트링 부상이 더 무서운 건 특별한 예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허벅지 근육을 늘리거나 강화해도 재발한다. 또 회복을 위해서 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다.

황희찬은 평소 햄스트링 염증을 유발하는 염분이나 육류를 멀리할 정도로 관리에 신경을 썼었다. 그럼에도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고 있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햄스트링 부상은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계속 부상을 당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황희찬도 월드컵 기간 햄스트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면서 근육을 푸는데 집중했다. 그것 말고 햄스트링 부상이 벗어나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카타르월드컵 기간 대표팀 의무진과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 사이에 갈등이 빚어진 것도 이러한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가 햄스트링으로 인해 수난을 겪은 건 이번 황희찬뿐만이 아니다.

현역 시절 엄청난 활동량으로 '산소 탱크'란 별명이 붙었던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도 2011년 햄스트링을 다쳐 당시 소속팀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입지가 좁아졌다.

국가대표 출신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서울)도 고질적인 햄스트링 부상으로 2019년 대표팀에서 은퇴했다.

손흥민 역시 햄스트링을 다쳐 2021년 3월 한일전 소집에 합류하지 못한 바 있다.

## 골 침묵 비난 직면한 손흥민 "팬 비판에 100% 동의"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과 단독 인터뷰... "팀과 팬들, 구단에 미안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31)이 팬들이 비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과 단독 인터뷰에서 "팬들이 내게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다"며 "팬들이 비판할 때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팀과 팬들, 구단에 미안하다"며 "지난 몇 년간 잘해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다. 나는 다시 그 정도로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부진으로 비판 받는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을 향해서는 "감독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그에게 보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안와골절 후 부상 여파에 관해서는 "솔직히 나는 지난 월드컵 때 100% 몸 상태가 아니었다"며 "그래도 월드컵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약동 같은 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 드래곤즈, 승리 상징 'V' 2023시즌 유니폼 공개

전남드래곤즈가 2023시즌 유니폼 'V'를 공개했다. 전남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승리를 갈망하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위닝 멘탈리티 'The Winning Stronghold'를 구단 정체성(identity)으로 확립하였다.

유니폼 공식 후원 파트너인 푸마(PUMA)와 함께 협업한 전남의 2023시즌 유니폼은 승리를 상징하는 'V'자 형태의 가이드 라인을 유니폼에 반영되었다.

홈 KIT은 노란색을 톤으로 배색을 하여 심미성을 더했고 어웨이 KIT은 흰색에 연회색을 배색하여 깔끔하게 표현되었다.

골키퍼 KIT은 푸마 공식 글로벌 KIT을 사용하여 홈은 초록색, 어웨이는 형광주황색으로 필드 플레이어와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공개된 전남의 2023시즌 유니폼은 전남의 흥개막전인 3월 1일에 오프라인 매장서 만나볼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